

## U대회 성공 유산 수영대회로 이어야

〈2019 세계수영선수권〉

광주 유니버시아드 1년... '저비용 고효율' 국제대회 새 모델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으로 또 한번의 성공 개최 기대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가 치러진 지 1년이 지났다. 당시 메르스 공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치러지면서 광주 U대회는 '성공 대회'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U대회 성공의 열매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오는 2019년 열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저비용 고효율'과 시민참여 등을 통해 성공한 대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2면> 지난해 7월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열린 광주 U대회는 국내외에서 '성공 대회'라는 평가를 받았고, 전 세계에 '광주'라는 도시 브랜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170개국 2만여명(운영진 포함)의 전 세계 대학생들은 대회 기간 중 흥겨운 남도의 멋과 맛을 한껏 즐겼고, 넘쳐나는 시민

들의 정(精)에 흠뻑 취했다.

12만명의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했고,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선수촌을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 '도심 재생 방식'으로 해결한 것도 성과였다. 무엇보다 자발적인 시민참여와 지역민들의 애환심, 자부심, 광주공동체 정신이 더욱 빛난 대회였다.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팔과 아이티 지역 선수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이 이어지면서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세계화하는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도 받았다.

대회기간 중 광주 도심은 세계 청년들의 '난장'으로 흥겨움과 즐거움이 넘쳐나면서 '젊은 도시' 광주주의 성장 가능성도 보여줬다.

광로도 루이 갈리앙 국제대학스포츠연

맹(FISU) 회장은 대회가 끝난 뒤 "광주가 전설을 썼다"라고 극찬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와 차기 U대회 개최지인 대만 타이베이 공무원들이 광주U대회를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다.

특히 광주 U대회는 수년째 지속된 지역 경제 침체와 '호남 소외'라는 지역적인 차별로 실의에 빠진 지역민들에게 자긍심과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메르스'로 실추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아울러 대회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고, 독특한 남도문화 자산 활용을 극대화해 '아시아문화수도'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 계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해 낸 점도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전국적으로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는 컸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 및 지출이 1조6167억 원인 반면 생산효과는 3조5275억 원, 1조 159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광주 U대회는 지역은 물론 국내에서 치러지는 국제행사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기도 했다. 유치에서 대회 준비까지 9년, 그리고 대회가 치러진 12월 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U대회 성공의 열매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도시 각 분야의 대대적 업그레이드 운동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광주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라는 또 다른 '메가 이벤트'를 남겨놓고 있다. 현재 조직위 사무총장 인선문제와 지원본부 구성, 예산 등 각종 난관에 부딪혀 있긴 하지만, 지난해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시민 역량으로, 또 한번의 성공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단체장 지적 쌓기에 눈 먼 행정 장밋빛 수요 예측 내놓고 강행

혈세로 짓고... 적자에 허덕  
관광문화시설

〈2〉 신규 시설 조성 경쟁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들어 관광문화시설을 건립·조성하는 시·군이 그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시설이 외지인을 끌어들여 인근 음식점, 숙박·편의시설 등의 매출이 상승하고 지역이 미지가 개선된다는 막연한 추정을 갖고 '단체장 지적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캠핑장은 이 같은 관광객 유입에 따른 효과가 미미한 것은 물론 전시관이나 기념관 입장객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단체는 관광버스로 '무료'만 찾아다니면서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다.

또 이들 시설은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콘텐츠도 부실해져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시·군은 신규 시설 건립·조성에만 관심을 보일 뿐 기존 시설의

보강·보완은 외면하고 있다.

일요일인 지난달 19일 오전 함평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차량 20여대만 주차장을 채울 정도로 한산했다. 뱀, 도마뱀, 거북이는 물론 토끼나 염소 등을 전시해 가족 단위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공원에 투입된 예산은 국비 117억원, 군비 63억원 등 195억원이다. 지난해 13만6103명이 입장해 입장수는 2억7125만6000원에 불과했으나 먹이, 난방·냉방비, 인건비 등 운영비는 6억9598만원이 들었다. 군으로부터 3억원, 어른 3000원의 저렴한 입장료 외에 추가 수익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주말에만 하루 1500명 정도의 '반짝' 입장객이 있고 주중에는 한산하다는 점도 그 원인이다.

부모·자녀 등과 함께 공원을 찾은 노모(여·47)씨는 "광주에서 가깝고 아이들이 있어 찾았다"며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는 미흡하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굿 모닝 목성"

NASA 무인 탐사선 '주노'

5년 28억km 비행... 궤도 진입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탐사선 '주노'(Juno)가 약 5년간 28억km를 비행해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행성인 목성 궤도에 진입했다.

인류가 쏘아 올린 탐사선이 목성 궤도에 진입한 것은 1995년 12월 '갈릴레오' 탐사선 이후 20년 반 만이다. '주노'는 앞으로 1년 8개월간 '갈릴레오'보다 훨씬 목성에 가까운 궤도를 돌면서 목성과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파헤치는 임무를 수행한다.

NASA는 4일(현지시간) 오후 11시 18분(한국시간 5월 12시 18분) 주노가 목성 궤도 진입을 위한 감속 엔진 점화를 시작한 후 35분 뒤인 11시 53분 목성 궤도에 들어서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이날 밤 주노의 목성 궤도 진입은 2011년 8월 5일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기지에서 발사된 지 4년 11개월 만이며, 비행거리는 28억km에 달한다. 주노가 궤도 안착에 성공하면 앞으로 20개월간 목성을 37회 공전하면서 목성 탐사에 나선다. 이번 목성 탐사 프로젝트에는 모두 11억 달러(약 1조2천700억원)가 투입된다. /연합뉴스



"목성이 보인다... 태양계 비밀이 풀린다" 목성 탐사선 주노가 목성 궤도에 안착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의 제트추진연구소에서 4일(현지시간) 주노 탐사선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주노 탐사선은 5년간의 우주여행 끝에 목성 궤도에 안착했다. /연합뉴스

## '한국 금10-10위' 광주·전남 선수들이 해낸다

리우 올림픽 D-30



세계인의 축제,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도 올림픽 메달이라는 간절한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관련기사 20면>

제 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현지 날짜로 오는 8월 5일 마라카낭 스타디움에서 화려하게 개막한다.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1만여 명의 선수단이 8월 21일까지 28개 종목에서 306개의 금메달을 놓고 선의 경쟁을 펼친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 종합 메달 순위 10위안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메달 10개 이상을 거둬들이겠다는 각오로, 베이징(2008년·금메달 13개·7위)·런던(2012년·금메달 13개·5위) 올림픽에 이어 3회 연속 '10-10' 달성을 노린다는 것이다. 메달 순위로만 보면 아테네(2004년·금메달 9개·9위)까지 포함

해 하계올림픽 4개 대회 연속 10위 달성을 목표로 했다.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은 한국 선수단의 10위 달성의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당장, 양궁의 기보배(28·광주시청), 최미선(20·광주여대), 유도 김성연(25·광주도시철도공사)의 메달이 점쳐지고 배드민턴의 이용대도 금메달을 노린다. 한국 육상 최초로 멀리뛰기에서 메달을 노리는 김덕현(31·광주시청)의 경기도 눈여겨볼만하다.

한편, 선수단 결단식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며 선수단 본단은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오는 27일 출국하기로 되어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정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3km/ℓ (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4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